우리말 번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2881-000004-01

제4차 유네스코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주요 결과 및 요약

참여, 형평 및 포용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우리말 번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차 유네스코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주요 결과 및 요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이 보고서는 2019년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의 아래 주소에서 출판되었습니다.

Feldbrunnenstraße 58, 46
20148 함부르크, 독일

©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는 유네스코 산하의 비영리 국제기구입니다. 연구소는 성인 평생교육, 읽기쓰기 능력, 비형식 기초교육에 초점을 두며, 평생학습에 관한 연구, 역량 강화, 네트워킹과 출판 업무를 이행합니다. 본 연구소의 출판물은 교육 연구자, 기획자와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들에게 소중한 자료입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프로그램들은 유네스코 총회의 결정에 따르나, 연구소의 출판물들은 전적으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책임 하에 발행됩니다. 유네스코는 본 연구소의 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출판물들의 표현된 관점, 사실 선정 및 의견은 저자의 것으로, 유네스코 혹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공식적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당국의 합법성이나 어떤 국가 또는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국어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번역 박민선
발행인 윤여각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04520)
웹사이트 www.nile.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행물등록번호: PM2020-15

ISBN 979-11-90726-14-6 (인쇄본)
ISBN 979-11-90726-15-3 (PDF)

사진

(앞표지) 왼쪽부터 시계방향순:
© 유엔난민기구/Colin Delfosse
© 유엔난민기구/Gordon Welters
© 유네스코
© 유네스코

10페이지
© 유네스코

(뒤표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순:

© 유엔난민기구/Marie-Joële Jean-Charles
© Carolina Jerez/유네스코
© Sofie Tesson/Taimani Films/세계은행
© Clinton Robinson/유네스코

디자인

크리스티아네 마르베키(Christiane Marwecki)

인쇄

독일 브레멘 기어지히 운트 고샤르크 인쇄소
(Druckerei Girzig+Gottschalk GmbH, Bremen)

이 보고서는 Attribution-ShareAlike 3.0 IGO(CC-BY-SA 3.0 IGO)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에 따라 오픈 액세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조건 (http://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이 지니는 구속력에 동의하였음으로 간주됩니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가 2019년에 발간한 『4th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GRALE IV)』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와의 합의하에 제작한 것입니다.

머리말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보다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귀중한 공공의 이익이자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 분야에서 증가하는 불평등, 인구 변화 및 기후 변화 등 매우 복잡한 도전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성인 역량 제고에 나서지 않는다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SDG 4)의 이행을 위한 교육 2030 실행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유네스코 글로벌 책무의 핵심입니다. 유네스코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RALE)가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듯, 성인학습 및 교육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5년 이후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국가 및 지역, 참여 대상에 따라 참여율의 편차가 크고 진전 양상도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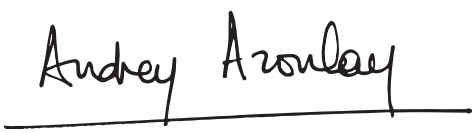
몇몇 국가에서 성인학습자의 대다수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의 교육 및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 지역과 농촌 지역의 낮은 문해 수준은 여성들의 학습 참여나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옵니다.

여성과 소녀를 위한 교육 기회 개선은 제가 유네스코 사무총장 취임 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이자, 지난 2019년 7월 개최된 G7 교육장관회의에서 유네스코가 '여성 교육과 우리의 미래 (Her education, our future)'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성인 장애인, 노년층, 이주자 및 난민,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회 집단보다 이러한 소외 계층의 학습 참여에 대한 정보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모두를 위한 포괄적 정책 개발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소외계층에 관하여 성인학습 및 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증가, 학습 참여비용 절감, 성인학습 및 교육이 가져오는 혜택에 대한 인식 제고,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원조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성인학습 및 교육을 성인이 학습자, 근로자, 부모 그리고 활동적인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입안자, 교육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은 이번 보고서가 포용과 형평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려낸 성인학습 및 교육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유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또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발간사

유네스코는 1949년부터 약 12년을 주기로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CONFINTEA)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첫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이하 GRALE) 편찬 이후 2013년 제2차, 2016년 제3차에 이어 2019년 12월 제4차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성인학습 및 교육에 대한 고찰과 전 세계 각국의 현황을 보다 많은 분과 공유하고자 그 주요 내용과 결과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GRALE은 벨렘 실행계획(Belém Framework for Action)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인학습 및 교육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는 세계적 수준의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보고서로, 성인학습에 관한 세계적 동향과 주요 과제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금융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개인의 생활을 비롯한 사적 영역과 정책과제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 사이에서 어떻게 '공공성', 또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균형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와 제4차 GRALE 보고서 모두 각국의 정책과제로 '학습'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존속방식 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학습을 보장하는 것이 곧 개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학습을 통한 자기 계발과 주체 형성 과정은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각 항목, 즉 참여, 지식, 거버넌스, 예산, 교육의 질, 불평등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과제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4차 보고서는 사회에서 쉽게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정책 과제를 설정할 때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SDGs의 슬로건인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 과제들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평생교육의 가치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GRALE 보고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우리말 번역 출판물이 우리나라 교육 관련 정책 입안자 및 정부 관계자, 연구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자료를 제공하고, 더불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여각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두문자어 및 약어

BFA
벨렘 실행계획(Belém Framework for Action)

CONFINTEA
세계성인교육회의
(CONFérence INTernationale sur l'Éducation des Adultes)

CONFINTEA VI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GRALE
유네스코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PIAAC
국제성인역량조사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RALE
유네스코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2015년 권고안
(2015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RVA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검증·인증
(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SDGs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4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

UIL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S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주요 결과

3
거버넌스
질
불평등
6

1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 측면에서의 진전은 충분치 못하다. 회원국과 국제사회는 학습 참여를 증진하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며, 전 세계의 우수 정책사례를 기반으로 가장 혜택 받지 못하는 계층(the least advantaged)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성인학습 및 평생교육의 참여율은 국가별로 균등치 않았다.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학습 참여율을 보고한 96개국 중 25%에 해당하는 국가의 참여율은 5%~10%, 20%의 국가에서는 20%~50%, 그리고 15%의 국가에서는 50% 이상이었으며, 무려 1/3에 가까운 29%의 국가에서 5% 미만의 참여율을 보였다.

- 참여에 대한 진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연구에 참여한 국가의 절반 이상이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28%의 국가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으며, 9%의 국가는 참여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 사회적 소외계층이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성인 장애인, 노년층 및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서 가장 낮은 학습 참여 증가율을 보였고, 여러 국가에서 성인 장애인, 도서산간벽지 거주자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성인학습 및 교육 기회 제공이 감소하였다.

- 여성의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덜 참여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우려로 작용한다.

- 빈곤층이나 단순 노무 등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 종사자들은 성인학습 및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일부 국가의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이 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족 또는 높은 비용과 같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힌다. 비용이 장벽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시 지출하는 비용과 직결된다.

2

데이터 부족은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 불평등 해소와 취약 집단의 요구사항 해결에 있어 주요 장벽으로 작용한다. 학습참여 및 비참여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증거에 기반을 둔 포괄적 참여 촉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설문에 응답한 152개국 중 103개국(67%)만이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율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저소득 국가 및 사회적 소외 계층과 학습 참여율이 낮은 계층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전체의 1/3 이상(37%)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소수집단, 난민 및 이주자의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율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 참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는 국가들이 수집한 데이터와 이를 보강하는 국제기구의 비교 데이터 등을 통해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많은 경우 정책, 거버넌스, 재정, 교육의 질 및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 GRALE IV 조사에 참여한 전체 국가 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46개국의 조사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3

성인학습 및 교육 정책과 거버넌스의 진전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몇몇 국가들이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충분치 못하다.

-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2015년 이후 성인 학습 및 교육 정책에 진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그러나 전체의 약 30%인 44개국은 2015년 이후 성인학습 및 교육 정책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47%, 17개국)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였다. 해당 국들은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는 데 취약함을 보였는데, 이는 국가들이 앞서 발간된 GRALE III이 설명하고 있는 성인학습 및 교육의 다양한 이점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체 응답 국가 중 3%에 해당하는 5개국은 2015년 이후 성인학습 및 교육 정책이 후퇴했다고 응답하였다.
-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검증·인증(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RVA)은 성인학습 및 교육 정책 중 진전이 가장 더딘 분야로, 정책상 진전이 있다고 보고한 국가는 전체의 66%에 그쳤다.
- 전체 응답국의 3/4는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정책들의 도입을 돕는 거버넌스 구조는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더 많은 행위자들 간 강력하고 공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거버넌스의 개선은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났다.
- 회원국들은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해 소수민족, 이주자 등 해당국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비형식 및 무형식 선행학습에 대한 인정·검증·인증(RVA)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8개국이 이주자 및 난민 집단의 학습 참여율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한편, 전체 응답국의 1/4 이상 국가에서 심각한 인구 변화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4

성인학습 및 교육 재정은 충분치 못하다. 더 많은 투자 유치 및 가장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GRALE III 조사 당시 57%의 국가가 예산 증액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국 중 1/3 미만(28%)이 2015년 이후 전체 교육예산에서 성인학습 및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17%는 비중 감소를, 그리고 41%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투자가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사회 최하위(least-advantaged) 계층 성인에 대한 집중 투자는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 확대 전략으로는 아직 폭넓게 사용되지 않는 편이다.
- 전체 응답국 중 9%의 국가가 성인학습 및 교육 예산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0.5% 미만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14%는 1% 미만을 지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여전히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가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교육의 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모든 분야에 걸쳐 고르게 향상되고 있지는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성인학습 및 교육(ALE for active citizenship) 분야는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 전체 응답국 중 3/4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2015년 이후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커리큘럼, 평가제도, 교육방식, 그리고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에서의 개선된 고용 조건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국이 기초문해능력(literacy and basic skills), 지속적인 훈련과 전문성 개발 분야에 있어 상당한 발전을 보인데 비해, 시민교육 분야는 매우 미미한 발전에 그쳤다. 예를 들면, 해당 문항에 응답한 111개국 중 오직 2%만이 시민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질적 기준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 조사에 따르면,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관용(tolerance), 그리고 연대(solidarity) 등의 가치 수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 및 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있어 여전히 뿌리 깊고 지속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며, 핵심 대상 집단(key target groups)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국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 전 세계적으로 교육취약계층이 정책수립자들의 관심 밖에 있어 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내 지역 간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대한 뿌리 깊은 불평등이 남아있다.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에는 이주자와 난민, 노년층, 성인 장애인, 도서산간 벽지 거주자 그리고 저학력 성인 등이 해당된다.

- 일부 국가에서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났다. 여성 참여율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성인학습자의 대다수가 여성일 정도로 많아졌다.

-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낮은 문해 수준은 이들이 취업 기회를 얻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는 이주자 및 난민을 위한 언어·문해 교육과정의 부족이며, 이들은 또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역량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이들을 위한 기술·자격 인정 체계 및 언어교육과정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최근 성장세를 보인 분야의 경우, 대부분 사내교육(employer-supported ALE) 분야의 저변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직업세계 및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역량 변화에 대한 화답이며, 따라서 직업 세계의 움직임은 성인학습 및 교육 기회가 있는 계층 파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들어가는 말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의 중요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Leave No One Behind). 이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강조한 메시지이다. 해당 메시지는 회원국들이 SDG 4를 통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도록 촉구하고, 목표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화하려면 반드시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인학습 및 교육은 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SDG 4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빈곤, 건강한 삶과 웰빙, 양성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지원한다. 이번 제4차 유네스코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RALE IV)의 메시지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성인학습 및 교육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 참여율은 고르지 못하고, 진전양상도 더딘데다 투자 역시 불충분하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 SDG 4의 다양한 세부 목표를 이행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 분야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다른 목표 역시 달성되지 못할 위험에 빠질 것이다.

본 보고서는 SDG 4의 달성 및 이를 통한 나머지 16개 목표에 대한 범분야적 기여 실현에 있어 성인학습 및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해 훨씬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2016년 출간된 GRALE III은 성인학습 및 교육이 다양한 정책 영역에 의미 있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들은 건강한 삶과 웰빙, 양질의 고용과 노동시장, 사회적, 시민적 그리고 지역공동체적 삶(social, civic and community life)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GRALE IV는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가 가져오는 다양한 이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점들이 고르지 않게 분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학습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통한 혜택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 및 역량 개발 기회, 삶의 질 개선 또는 개개인의 삶과 일의 터전인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현 상황이 계속되고 정치적 견해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성인학습 및 교육의 혜택은 사회소외계층 및 지역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더 나은 지위에 있으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집중되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거나 혹은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후 위기, 기술 발전, 인구 변동 및 이주, 그리고 소비와 생산 패턴 변화와 더불어 나날이 복잡함과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현대 사회의 삶과 일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회복탄력적이며 학습에 민감한 사람을 요구한다. 더불어 그러한 자질을 함양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특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성인학습 및 교육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투자 및 활동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개선해야 한다.

개요

성인학습 및 교육 진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GRALE IV는 회원국들이 벨렘 실행계획(BFA)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에서 채택된 벨렘 실행계획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회의 발전 및 성인문해와 성인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회원국에 성인의 학습활동 참여율에 대한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권고하고,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에게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와의 협력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권고사항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벨렘 실행계획은 정책, 거버넌스, 예산, 교육의 질, 참여·포용 및 형평성 등 5대 실행 분야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는 유네스코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2015년 권고안(2015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RALE)이 정의한 3가지 학습 분야 - 1) 기초문해능력, 2) 계속교육 및 전문성 (직무능력) 개발, 3) 인문교양 및 보통교육, 지역사회교육 - 와 함께 GRALE 보고서를 아우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GRALE IV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총 159개국이 응답한 GRALE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 2009 벨렘 실행계획 중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 이행 진척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육 참여에 대한 세부 주제별 분석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국가의 약 2/3 가량에서 2015년 이후 성인학습 및 교육 관련 정책에 진전이 있었던 것에 비해, 30%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진전이 더디었다. 전체 3%에 해당하는 5개국이 정책적으로 퇴보하였으며, 이 중 4개국은 소위 말하는 '취약국'이었다. 전체 응답국의 3/4 가량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으며, 나아가 50%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지출 중 성인학습 및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답한 국가는 전체의 28%에 불가하였으며, 17%는 비중 감소를, 그리고 41%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대체로 저소득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지출 감소를 보고하는 경향(35%)이 있었다. 75%의 국가에서 2015년 이후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에 있어 눈에 띄는 질적 향상을 보고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대한 진전은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국의 절반 이상(57%)에서 참여율 증가를, 28%가 변화 없음, 그리고 9%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체 152개 응답국 중 103개국(67%)만이 이러한 참여도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의 1/3 이상인 37%의 국가들에서 사회 소수집단, 이주자와 난민의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율 정보가 없다고 답하였다.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참여율을 보고한 국가 중 25%는 5%~10%의 참여율을, 20%가 20~50%의 참여율을, 그리고 15%가 50% 이상의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한편, 5% 미만의 참여율을 보고한 국가는 전체의 약 29%에 달했다. 여러 국가에서 성인 장애인 및 도서산간벽지 거주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성인학습 및 교육 제공이 감소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소외·취약계층일수록 저조한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도를 보였다. 둘째, 참여에 대한 정보, 특히 그중에서도 저소득 국가들이나 사회적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물론 예외도 일부 존재하지만,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 아닌 경우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 데이터는 대부분 매우 제한적이거나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SDG 4 목표달성과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행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참여 및 비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정책

조사 결과, 해당 질문에 응답한 147개국의 2/3(66%) 가량이 2015년 이후 성인학습 및 교육 정책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응답국의 30%에 가까운 44개국에서 정책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위 '취약국(fragile state)이라 불리는 4개국을 포함, 총 5개국(3%)에서 성인학습 및 교육 정책이 퇴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분야는 '이해관계자 참여'로, 147개 응답국 중 86%가 이 분야에 있어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보인 두 번째 분야는 '성인학습 및 교육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으로, 전체의 82% 국가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검증·인증(RVA)'으로, 전체 국가 중 66%만이 진전을 보였다.

저소득 국가들은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수립', '법제 마련' 및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검증·인증(RVA)' 분야에 있어 진척도가 가장 높았으나, 중상위 소득 국가들은 해당 분야 모두에 있어 그 진전 정도가 더디었다.

RALE에서 정의한 세 가지 분야 중 전 세계적으로 1) 기초문해능력, 2) 계속교육 및 전문성 개발(직무능력)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였다. 세 번째 분야인 인문교양 및 보통교육, 지역사회교육(능동적 시민성 함양 교육)은 성인학습 및 교육의 세 분화된 범주 하에서 5% 또는 그 미만의 진전을 보였다. 국가들의 성인학습 및 교육 관련 주요 정책 목표는 문해율 증진 및 고용 촉진에 있었으며, 시민교육에는 비교적 관심을 덜 보였다.

성인학습 및 교육 거버넌스 관련 희망적 징후

전체 137개 응답국 중 3/4 가량인 103개국에서 2015년 이후 성인학습 및 교육 거버넌스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아랍 국가에서 89%로 가장 큰 진전을 보였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저소득 국가 그룹이 89%로 가장 높은 진전을 보였다.

151개 응답국 가운데 절반 가량이 성인학습 및 교육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가장 큰 진전을 보인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이였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구체적 사례로는 '성인학습센터, 위원회 또는 프로그램의 구성', '성인학습자, 교육자, 정부 및 기타 주요 교육 제공자 간의 협업' 등이 있었다.

전체 152개 응답국의 약 30%인 46개국에서 2015년 이후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가장 큰 발전을 보인 지역은 아랍 지역으로, 18개국 중 10개국에서 진전을 보고하였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국가는 전체 149개국 중 약 40%인 60개국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32개국 중 18개국), 아랍 지역(18개국 중 9개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25개국 중 12개국)에서 각각 절반가량이 이에 해당되었다.

150개 응답국 중 약 43%에 해당하는 65개국이 분야 간(intersectoral) 협력, 148개국 중 약 41%인 61개국이 부처 간(interministerial) 협력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한 반면, 국가 간(transnational) 협력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응답한 곳은 149개국 중 약 25%인 37개국에 불과했다.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는 전체 150개 응답국 중 1/3 가량인 150개국에서 점점 더 분권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150개국의 약 45%인 68개국은 2015년 이후 분권화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성인학습 및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부족과 더딘 진전

GRALE III 조사 당시 57%의 국가가 성인학습 및 교육 관련 예산 증액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국의 41% 가량인 149개국 중 61개국에서 2015년 이후 공공교육예산지출 중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곳은 전체 응답국의 1/3 미만(약 28%)인 42개국에 그쳤으며, 25개국(약 17%)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지난 10년간,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의 예산 지출은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중간소득 및 고소득 국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소수 집단 등 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체 응답국 중 1/5(약 19%) 가량이 전체 교육예산의 0.5% 미만을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에 할애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 미만인 곳은 14%였다. 교육예산의 4% 이상을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에 사용한다고 밝힌 곳은 전체의 약 19%였다.

전체 149개 응답국 중 107개국만이 공공교육예산 중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에 할당된 비중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며,

38개국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성인학습 및 교육 분야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교육 및 기술 부족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성인계층'(응답국 중 45%)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 실업자'(44%), '농어촌산간벽지 거주자'(44%) 그리고 '여성'(38%) 순이었다. 이들 중 특별히 더 소외된 집단이 있지는 않았으나, '노년층'에 대한 관심은 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인학습 및 교육 재정 중 소수집단을 위한 예산이 우선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국의 3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28%는 국가 성인학습 및 교육 예산 정책 수립에 이주자 및 난민이 우선시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성인학습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있어 균등치 않은 진전

전반적으로, 전체 응답국의 75%인 107개국에서 성인학습 및 교육의 '질적 측면'에 있어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지역별로는 라틴 아메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각각 88%와 86%로 가장 높은 진전률을 보였다.

전체 150개 응답국 중 3/4 가량인 113개국(약 75% 수준)에서 '커리큘럼 기준 개발'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중앙 및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긍정적인 발전 상태를 보였다.

북미 및 유럽 국가들만이 '커리큘럼'보다 '평가' 부분의 발전 정도가 더 높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북미와 유럽 국가의 성인학습 및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 타 지역과 다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147개 응답국 중 2015년 이후 '교수 방법'은 72%, '학습자료 개발'은 65%의 국가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교수 방법' 및 '학습자료' 분야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였다.

응답국의 절반 이상인 52%의 국가들에서 '교육자들에 대한 사전 연수 및 훈련'의 향상을 보고하였고, 70%는 '직무훈련', 그리고 58%는 '고용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기초문해능력', '지속적인 훈련과 전문성 개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반면, '시민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그 발전 정도가 미미했다. 예를 들어, 전체 111개 응답국 중 2%만이 시민교육 분야의 '커리큘럼 질적 기준 개발'에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율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

152개국 중 절반 이상인 57%가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추정하였으며, 28%는 변화 없음, 그리고 9%에 해당하는 13개국은 참여율 감소를 보고하였다. 전체의 약 7%인 10개국은 참여율 변동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32개 응답국 중 22개국, 약 72%)가 2015년 이후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증가한 국가 비중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북미와 서유럽(21개 응답국 중 8개국)이었다. 소득별로는 저소득 국가들이 73%로 가장 높은 참여율 증가를 보였으며, 그 뒤를 각각 중하위소득 국가(61%)와 중상위소득 국가(62%)가 이었다.

152개국 중 약 67% 가량인 103개국만이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율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를 제공한 96개국 가운데 25%가 5~10%의 참여율을, 20%가 20~50%, 그리고 15%가 50%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1/3에 가까운 29%의 국가들은 5% 미만의 참여율을 보였다.

특정 집단의 참여율과 관련된 질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집단은 여성(139개국 중 59%)이었으며, 그 뒤를 실업자(134개국 중 54%)가 이었다. 성인 장애인(135개국 중 36%) 및 노년층(134개국 중 35%) 그리고 소수집단(131개국 중 34%)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수자, 이주자 및 난민 집단의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율은 37%의 국가가 '알 수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1/4 이상의 국가들이 2015년 이후 노년층의 학습 참여율 또는 교육 제공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5년 이후 참여율에 있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기초문해능력',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성 개발' 분야로, 136개 응답국 중 57%를 차지하였다. '시민교육'의 경우 132개국 중 36%가 참여율 증가를 보였으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국가 역시 36%에 달했다. 132개국 중 약 1/4 가량인 27%의 국가들은 2015년 이후 시민교육 참여와 관련된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에 대한 정보 부족

지난 10년간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대한 정보 수집에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가별 모니터링 능력 개선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있다. 전체 응답국 중 2/3만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참여율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국가가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역량 및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심지어 고소득 국가들조차도 RALE에서 정의한 3개 학습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대한 정보는 특히 저소득 국가 및 취약·저참여 집단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전체의 1/3 이상인 37%의 국가들에서 이주자 및 난민, 소수 집단의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율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참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는 국가들이 수집한 데이터와 이를 보강하는 국제기구 비교 데이터 등을 통해 상황이 개선되는 중이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많은 경우 정책, 거버넌스, 재정, 교육의 질 및 참여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고용주 지원 성인학습 및 교육을 통한 학습지형의 재개념화

GRALE IV 보고서는 특히 고소득 국가들에서 고용주의 학습지원이 어떻게 성인학습 및 교육 지형을 재개념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 예로, 스웨덴의 경우 고용주 지원 학습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1975년에는 성인인구의 5.5%에 불과했으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는 58%로 증가하였다. 칠레와 폴란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고용주 지원 학습활동의 빠른 증가세는 정책수립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용주들이 학습활동에 더 큰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성인학습 및 교육 관련 공공 정책의 비중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나 시장 실패 문제에 있어서 공공정책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시장이 성인학습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반드시 필요한 여성 참여 향상

여성의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 및 소녀들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낮은 문해력은 구직 기회 및 시민사회 참여 감소로 이어진다. 교육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비교적 덜 참여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우려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불공평한 성인학습 및 교육 제도 참여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의 여성들의 노동참여가 남성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두 나라의 GDP는 각각 12%와 3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권 강화는 다른 권리들을 보호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학습 및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참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정 그룹에서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도

사회소외집단이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가장 낮은 참여율 성장을 보인 집단은 성인 장애인, 노년층 그리고 소수자였으며, 몇몇 국가는 성인 장애인 및 농어촌 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성인학습 및 교육 제공이 감소하였다.

교육 및 기술 습득에 대한 제한된 접근 기회는 이주자 및 난민에게 구직활동 제약사항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의 학습 참여도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조사 참여국이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이주자 및 난민 관련 성인학습 및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들

국가적, 지역적 문화와 전통과 마찬가지로,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성인학습 및 교육에 있어 소외계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곤과 부의 분배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들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원격개방교육(open and distance learning)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 및 교육에 대한 오프라인 접근성(physical access)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많은 국가에서 학습 장벽으로 자리하고 있다. 농어촌 등 외딴 지역에서는 교육 장소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프로그램 접

근성 부족 또는 높은 수업료와 같은 구조적 장애가 존재하며, 프로그램 참가비의 경우, 학습 참여에 대한 비용적 장애물로 직결된다.

빈곤, 단순·반복노동 종사 등 다양한 제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를 고려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학습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은 이들이 학습을 통해 삶의 전망과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대한 상황적, 제도적, 기질적 방해요인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 성인학습 및 교육의 접근성 향상 및 공급 확대를 위한 개입
- 소외계층을 위한 집중 투자
- 행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등 학습자 관심을 자극하여 수요 증진
- 사회 빈곤층을 위한 학습 참여 비용 인하
- 참여 비용 장벽 해소를 위한 금전적 장려책
- 바우처, 유급휴가 및 경력개발 기회 등 비금전적 장려책
- 모든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조언 및 상담 기회 보장
- 학습자들의 ICT 접근권 보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참여 불평등을 인지하는 것은 SDG 4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전반적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참여국들의 비약적인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 국가와 이주자 및 난민과 같은 취약·소외계층 관련 데이터
- 성인학습 및 교육에 대한 정부, 고용주 및 개인 차원의 투자 확대, 가장 성인학습 및 교육이 필요한 집단에 대한 투자 확대
- 원조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의무 이행 및 아동과 더불어 성인교육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분야 예산 투자의 재조정
- 취약·소외계층과 관련하여 더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
- 성인학습 및 교육에 대한 투자의 사회적, 시민적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인지하는 한편,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시민교육이 가지는 역할 인식
- 성인학습 및 교육이 가져오는 광범위한 혜택을 회원국들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적이고 범분야/범부처적 접근 및 이에 부합하는 자원 분배

행동 촉구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 기회는 놀라울 정도로 균등치 못하다. 사회의 일부가 삶 전생애에 걸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하는 동안, 다른 일부에게는 매우 희박한 참여 가능성만이 주어진다. 신뢰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사회 취약·소외계층의 학습 현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들이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지도 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데이터 확충과 투자 증대, 어떠한 정책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 초점은 특히 가장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학습참여가 낮은 집단과 국가 및 지역별 변동에 맞춰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가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 의지와 현명한 정책, 그리고 그에 걸맞은 투자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면, SDG 4 뿐만 아니라 다른 16개 SDG 목표들에 대한 성인학습 및 교육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요구되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SDG 4와 그 외 모든 SDG 목표 달성에 대한 가능성은 한없이 작아질 것이다. 즉, 이는 회원국, 국제사회의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우리가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인학습과 교육을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달성을 위한 노력의 중심에 두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결방안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자. 현시점에서 그 이하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